

조선시대 복식규제를 통해서 본 사치풍조의 제 요인과 복식변화 - 17·18세기를 중심으로 -

이 민 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The Factors of Luxury Trend and Fashion Changes as Result of Costume Regulations during Chosŏn Dynasty : 17th and 18th Century

Min-joo Lee[†]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2003. 4. 3. 접수 : 2003. 7. 26. 채택)

Abstract

The regulations for costume were set to improve people's moral fiber and cultural standards.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the main aim of this regulation was to prohibit luxury. But being the turning point to a modern state, with breaking social status and development of commerce, industry, and the mind of imitation, regulation for luxury wasn't enforced, but rather it brought many revolutionary changes in costume. Restraining human impulse to express beauty was no longer subject to regulation. Therefore, people started to recognize the human figure with shorter Jegory(赤古里) and strengthened ceremonial capacity by broadening po's(袍) sleeves. The silk fabrics were the most popular fabric during this era, special patterns were added for decoration and also for blessings. Complementary colors were used for contrast on the collar (깃), cuffs (끝동), Gyotmagi (결마기), and sash (고름). This color composition gave a younger and more active look. And with red stripes on the sleeves, it emphasized the beauty of the color arrangements as well as providing protection from the devil.

Key words: costume regulations(복식규제), fashion changes(복식 변화), luxury(사치)

I. 서 론

규제(規制)란 어떤 일을 법이나 규정으로 제한하거나 금하는 것을 말한다¹⁾. 조선시대 복식규제는 신분계층에 따른 기강확립과 외래문물의 무절제한 동경에 대한 풍속교화, 사치풍조에 대한 검약정신의

함양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이러한 규제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침으로 내려지는 것이지만 바꾸어 말하면, 사회가 혼돈되고 법질서가 올바르게 돌아오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시대적 변천이나 사회풍조의 변인에 따라 규제의 강조점이 바뀌게 마련이다. 즉 조선 초에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4-BL1071)

[†] 교신저자 E-mail : mjlee815@hanmail.net

1)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p. 774.

기 위한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복식규제로 신분을 구별하고자 하였으나, 17·18세기는 임진왜란을 겪은 후 봉건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무차별적인 사치를 금압(禁壓)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7·18세기의 사회적 분위기는 양반은 물론 경제적 능력을 갖춘 중인·상인·서얼·천민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는 여러 제반 사회현상과 맞물려 복식에 대한 사치로 이어졌음을 영·정조시대 수없이 내려지는 사치금지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치는 무절제한 소비와 사치품 수입에 따른 국부의 낭비도 있었으나, 조선의 양잠업 발달 및 방직기술의 발전²⁾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17·18세기 복식규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풍조를 살펴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한 복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복식규제와 관련된 논문³⁾들은 어떠한 금제가 있었는가 하는 양상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규제 자체보다는 조선시대 기본법전을 통하여 복식규제의 내용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풍조가 변화되어 가는 여러가지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여 당시의 쟁점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17·18세기 복식규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입증하고자 한다. 더욱이 끊임없이 내려지는 복식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켜질 수 없었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적 산물인 출토복식을 통하여 당시의 복식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선시대 복식규제

조선시대 복식규제는 조선 초 「經國大典」을 기본으로 규제의 근간을 살펴보고, 「大典後續錄」과 「續大典」의 법전을 통해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규제의 목적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7·18세기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되어 있는 상소문을 통하여 당시 복식규제의 주된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법전에 나타난 복식규제

조선시대 기본법전이며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148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경국대전」 예전 의장조에는 신분에 따른 관복이 기록되어 있다. 잠령 조⁴⁾에는 사족의 의복은 철릭 및 치마가 13폭을 넘지 못하고 서인의 경우에도 9폭의 천으로 12폭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관모에 있어서도 사족의 초립은 50 竹으로 하고 마미림·부죽림을 쓰며 서인의 초립은 30죽 또는 죽직림(竹織笠)·승결림(繩結笠)으로 제한한다는 규제가 기록되어 있다. 형전 금계 조⁵⁾에는 높고 낮은 관리로서 붉은 빛·갓빛·흰빛의 표의와 백립·홍첩(紅帖)을 사용하는 자와 남녀간의 일반백성으로 붉은 빛과 자줏빛의 옷, 자줏빛의 띠, 금 그릇, 은 그릇, 푸른빛으로 그림을 그린 술잔, 섞여 잔 생초 등을 사용하는 자는 모두 장형 80대에 처한다고 하여 금제를 통한 규제의 목적이 신분의 등급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1543년 「대전후속록」 예전 금계 조⁶⁾를 보면, 혼인하는 집의 납채 성혼 일에 사라능단을 사용하는 것은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당사관 외에는 대홍의를 내공(內拱)까지도 금하였다. 유생과 공상·서인·유 무직자도 모두 자색 의를 금하였으며

2) 남미혜, “15,16세기 복식사이의 유행과 국가의 대응책 - 사라능단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27집. (2000), pp. 209-211.

3) 백성례, “복식사치금제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이선재, “조선시대 복식금제의 동인과 양상에 관한 연구”, *숙대 논문집* 30 (1990).

4) 「經國大典」, 禮典, 雜令條, 조선총독부중추원, p. 308. “土族衣服·帖裏及裳母過 十三幅, 庶人衣服九升, 帖裏及裳十二幅, 土族草笠五十竹, 又馬尾笠·付竹笠. 庶人草笠三十竹, 又竹織笠··繩結笠”.

5) 「經國大典」, 刑典, 禁令條, 조선총독부중추원, p. 482. “大小員人用紅·灰·白色 表衣, 白笠, 紅粘者, 酒器外金銀·青畫白磁器者, ... 宗親妻女·堂上官母妻女婦·有蔭新婦外用 有玉簪子者, 寺刹外用眞彩者, 用花席者, 用朱漆器者, 用絲花鳳·金銀露布花者, 用焰焰者, 官舍及堂下官以下婚姻人用紗羅綾緞團毯者, ... 并杖八十”.

6) 「大典後續錄」, 禮典, 禁制條. “婚姻之家納采成婚日用紗羅綾緞例論斷. 堂上官外母得着大紅衣內拱勿禁儒生及工商庶人勿論有無職並禁紫色衣女同... 土族婦女外紹裘一禁”

여자 또한 금한다고 하였다. 관모에 있어서는 경국 대전의 내용과 동일하며 그 외에 사족 부녀 외에는 초구를 금하는 것으로 신분에 따른 금제의 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46년 『속대전』의 금제⁷⁾에는 위로는 궁으로부터 아래로는 여염(閭閻)에 이르기까지 장복·용복 외에 토산이 아닌 것은 입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사족 부녀의 복착은 일체 그 남편의 작품(爵品)에 의하고 신부 외에는 대단(大緞)·금수(錦繡)·봉채(鳳釵)·금옥채(金玉釵)·주전(珠鈿)·가환(假鬢) 쓰는 것을 모두 금하였다. 속대전의 규제내용에서는 토산이 아닌 수입품과 사치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근대사회에서 의복에 대한 금제 조항이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면 근대국가로의 과도기에서 규제행위는 신분을 넘어서는 소비 즉 사치로 간주되어 직물과 기명·복식 등의 물품에 따른 사치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하였다.

2.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복식규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복식규제⁸⁾는 크게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금제와 실제적인 금제로 대별된다.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금제란 주로 왕조 교체기에 호트러진 정국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조선왕조 전반에 걸쳐 내려졌으며, 실제적인 금제는 특정 왕조에 집중되어 내려지는 것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종조의 금제는 제도정비를 위한 복식규제가 주된 목적이었으

며, 종종 조의 복식금제는 폐조 연산군의 실정으로 인한 풍속교화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1675년 이조판서 박세체가 올린 시무 12조⁹⁾에는 사치의 폐단이 심하여 많은 것을 다투고 교묘한 것을 경쟁하고, 전하여 서로 본받아, 복식·거마·궁실·연음 등이 새롭고 풍성해짐을 한탄하면서 입금이 먼저 검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조와 정조 년에도 여러 번 어(嫔御)의 복식과 기완(器玩)을 멀리 연경의 저차에서 무역해 오고 있어 과조를 세워 통렬히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치하는 풍속이 날로 더하고 달로 더 함을 걱정하는 많은 상소가¹⁰⁾ 올려졌다. 따라서 17·18세기는 사치문화의 확산을 막고자함이 복식규제의 주목적이었다.

사치란 씀씀이나 치례를 분수에 지나칠 만큼 호화롭거나 고급스럽게 하는 것¹¹⁾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사치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피는 담바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왕실전용으로 인식하여, 당상관 이상의 관위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¹²⁾. 그러나 초피를 여염의 천민까지도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 값이 4~5배에 달하게 되었다¹³⁾. 특히 무늬 있는 비단은 무역품으로 상인과 역관에 의해 거래되어 저자거리에서도 살 수 있었기¹⁴⁾ 때문에 서인들의 열침(孽妾)들도 보통으로 비단옷만 입고 있었다¹⁵⁾. 이처럼 17·18세기의 사치추구 문화가 성행할 수 있었던 요인은 상공업의 발달¹⁶⁾과 중인 및 상인을 비롯하여 농업기술상의 발전으로 부농이 탄생¹⁷⁾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부의 축적은 신분 상승을¹⁸⁾ 과시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층부처럼 소비

7) 『續大典』, 禁制條, 1746년. “上自宮禁下至閭閻章服戎服外非土產則毋得服着禁軍衛軍官及醫女針線婢勿禁僮衣士族婦女服着—依其夫爵品外用大緞錦繡鳳釵金玉釵珠鈿假鬢者...”

8) 태조 5, 태종 14, 세종 2, 성종 6, 연산군 11, 중종 26, 인종 1, 명종 2, 선조 5, 광해군 2, 인조 5, 효종 3, 현종 3, 숙종 3, 영조 14, 정조 16, 순조 1, 고종 1.

9) 『肅宗實錄補闕正誤』, 14年 6月 乙卯.

10) 『英祖實錄』, 11년 1월 癸巳, 13년 9월 庚午, 19년 6월 甲子, 20년 12월 戊辰. 『正祖實錄』, 3년 9월 己丑, 3년 9월 己亥, 8년 3월 壬寅, 10년 1월 丁卯, 18년 3월 丙辰, 18년 7월 丁酉, 23년 6월 癸丑, 24년 2월 乙巳.

11)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림, 1986), p. 1763.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p. 177-178.

13) 『宣祖實錄』, 34년 3월 을묘.

14) 『정조실록』, 19년 8월 신축.

15) 『영조실록』, 5년 10월 경신.

16) 강만길, 대세계사 7 (서울 : 태극출판사, 1984), pp. 238-264.

17) 이종일, “18세기 조선사회에 대한 계급론적 연구”, 대구교대 논문집 28권 1호 (1987), p. 108.

18) 조계찬, “임진왜란의 신분향상에 관한 소고”, 동아논총 12권 1호 (1975), pp. 102-110.

하고, 상층부의 관행을 모형으로 삼으려 하는데서 나타난 보상심리로 이는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동시에 사치문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Ⅲ. 사치풍조의 제 요인

복식규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규제는 사회가 혼돈되고 법질서가 율바르지 않을 때 그것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시대적 변천이나 사회풍조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바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17·18세기 계속되는 복식규제를 통하여 당시의 사치에 따른 사회풍조를 신분사회의 해체, 상공업의 발달, 모방심리의 발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신분사회의 해체

조선시대는 양반을 상층으로 하고 천민을 최하층으로 하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신분제 전반의 동요 속에 봉건적 신분사회 해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정에서는 국난극복을 위하여 식량, 병력 및 국가 경비를 백성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직면했고 이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공명첩을 전라도¹⁹⁾, 함경도²⁰⁾, 평양 감영²¹⁾ 등 각 지역마다 수 백 장씩 만들어 신분을 향상시켰다. 한편, 17세기는 주로 군량 등 재정궁핍과 구호정책의 하나로 실시된 납속책, 정규전이나 유격전 등의 수많은 전투에서의 군공, 병력을 충원시키기 위한 무과시험 등으로 신분 향상의 기회가 주어졌다²²⁾. 또한 이모작, 특수작물의 재배 등 농업기술상의 발전은 농민들에게 부를 축적해 갈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서얼과 향리뿐만

아니라 천민까지도 양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²³⁾. 이처럼 봉건적 신분제가 해체되고 기강이 해이해져 신분의 구별이 없어지자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되었다.

즉 신분사회의 해체는 여항에서 사치를 서로 숭상하여 기이하게 꾸미면서 궁가의 양식이라고 말하였으며²⁴⁾, 서민들의 화려한 바단옷은 참담하게 경상(卿相)과 견주고, 조정 인사들의 거마 장식을 거리에서 과시하였다²⁵⁾. 천민들 역시 모두 립자를 쓰고 도포를 길게 끌고 다니는²⁶⁾ 등 위아래가 서로 본받아 궁양을 모방함으로써 존비의 절도가 없어졌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신분이 상승하였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들의 복식변화와 혼돈은 당연한 귀결이며, 더 이상 규제에 의하여 억압될 수 없는 역사적 대세였다.

2. 상공업의 발달

조선후기로 갈수록 고급 견직물의 생산은 저조하게 되었으며, 각 지방에서는 그 지역 나름대로 토산주(紬)직물이 생산 유통 되었다²⁷⁾. 그러나 영조 10년에는 이미 상방의 직조기가 철거된 상태²⁸⁾로 사·라·능·단·금과 같은 고급 견직물을 재직하는 것은 훨씬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내 생산은 줄어들었으나, 중계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대 중국관계는 정치·외교적 측면의 사대교린정책에 입각한 조공관계에서, 교역을 통한 상업적 이윤을 획득하고 선진문물을 수용하여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고자²⁹⁾하는 실리관계로 변모하였다.

각 관청의 식리사업이 성행하면서 사상들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사실상 국내의 사상들에게도 대·청무역로가 개방되었으며, 피물·지지(紙地)·주·저·면 등

19) 『肅宗實錄』, 8년 12월 정축.

20) 『肅宗實錄』, 7년 12월 경인.

21) 『正祖實錄』, 16년 1월 을유.

22) 趙啓綱, *op cit.*, p.115.

23) 이종일, *op cit.*, p.108.

24) 『英祖實錄』, 8년 7월 정해.

25) 『正祖實錄』, 4년 10월 계해.

26) 『正祖實錄』, 3년 3월 임진.

27) 권영숙, 장현주, “조선시대 견직물의 생산과 유통”, *복식* 40권 (1998), p. 37.

28) 『英祖實錄』, 10년 2월 신해.

29) 원유환, “조선후기 대청관계 및 인식의 변화”, *야생아 문화연구* 4권 (2000), p. 1.

이 수입되었다³⁰⁾. 이에 따라 서울·개성을 비롯한 평양·안주·의주 등은 상공업 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출 수 있을 만치 그 내부에 상공업상의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고 있었다³¹⁾.

한편 이익·박지원·정약용은 대청무역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였으며, 비단·모자·완구 류 등 소비사치품³²⁾을 사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방의 풍습은 사치가 날로 심하여 깊은 산속에 사는 부녀자들까지 한 벌의 비단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없을³³⁾ 정도로 이방의 것을 좋아하고 사치하였다. 특히 복식에 소요되는 것이면 예로부터 면주(綿紬)는 사용하지 않고 능단(綾緞)을 사용하여 폐단을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³⁴⁾ 복식에 능단을 사용한 풍속은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더욱이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각종 비단의 풍요로움은 여인들의 비단을 갖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와 수입품에 대한 동경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3. 모방심리의 발현

조선의 상품경제,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중세적인 신분질서가 무너져 가던 조선 17·18세기는 문학, 시가, 회화 등의 예술이 발달하였으며, 이들 예술작품은 당시의 복식형태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³⁵⁾. 한 예로 『춘향전』³⁶⁾의 춘향이 그네 뛰고 난 후 춘흥을 못 이기어 목욕을 하러 물가로 내려가는 춘향이의 모습³⁷⁾이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어 춘향전을 읽거나 들은 사람은 그것을 모방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선택된 복식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복식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영조 25년에는 의복과 음식에 대한 사치와 거마, 제택에 대한 화려함이 점점 더 사치스러워져 가고 있는데 이를 돌려가면서 서로 모방하였다. 따라서 한 사람이 비단옷을 입으면 1백 사람이 따라서 입었으며, 습속으로 굳어진 탓에 어떻게 수습할 방도가 없게 되었다³⁸⁾. 정조 15년에도 빈부가 갖지 않은데 한 사람이 지나치게 사치를 하면 백 사람이 본받아 유행이라 하면서 꼭 억지로 그것을 따라가 극도로 가난한 자라도 구차하게 시속과 어울리려고 하므로 의복만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다³⁹⁾.

대부분 초기의 유행은 왕이나 귀족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한 것으로 유행의 전파이론에 따르면 하향전파가 우선한다. 조선시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앙을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며, 민간의 사치도 반드시 宮樣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다⁴⁰⁾. 이와같이 사치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방에 의한 유행⁴¹⁾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방심리는 처음에는 같아지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나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미의식으로 발전하여, 복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IV. 복식변화의 제 양상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복식은 襦·袴·裳·袍를 기본으로 하는 國制와 궁중의 복식이나 관리들의 공복과 같은 중국복식의 이중적 구조가 존재하였

30) 원유환, *Ibid.*, p. 3.

31) 강만길, “조선 후기 수공업자와 상인과의 관계”, *이세아 연구* 9권 3호 (1996), p. 29.

32) 李瀾, *星湖雜說* 6, 萬物門, 銀貨條.

33) 『英祖實錄』, 11년 12월 경오.

34) 『正祖實錄』, 10년 1월 정묘.

35) 강만길, *대세계사* 7 (서울: 태극출판사, 1984), pp. 287-290.

36) 춘향전의 최고본(영조 30년)은 만화재 유진한의 것으로 현재의 춘향가와 거의 같다고 하는 군산대학교 최동현 교수의 글을 근거로 하였다.

37) 김현주, *관소리와 풍속화 그 넓은 예술세계* (서울: 효형출판, 2000), pp. 73-75. ... 저와 같은 계집종과 함께 鞦韆을 하려고 난초같이 푸른 머리 두 귀 눌러 고이 땅고 金釵를 정제하고 羅裙에 두른 허리 아리따고 고운 태도 아장거리고 흐늘거리 가만가만 나오더니...

38) 『正祖實錄』, 3년 2월 庚辰.

39) 『正祖實錄』, 15년 4월 壬戌.

40) 『英祖實錄』, 25년 9월 甲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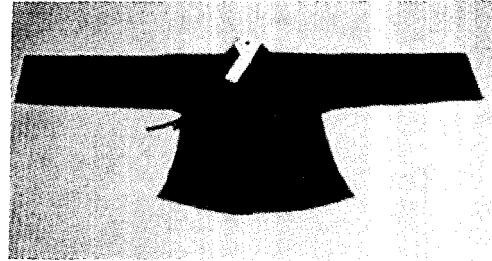
41) 이은영, *패션마케팅* (서울: 교문사, 1999), p. 19.

다. 특히 便服에서의 변화는 삼국 이래 큰 차이가 없었으나, 17·18세기에는 사회·경제·문화전반에 걸친 변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⁴²⁾. 사치를 금하고자 하는 복식규제에도 불구하고 신분사회의 해체, 상공업의 발달, 모방하고자 하는 심리요인 등의 사치풍조는 복식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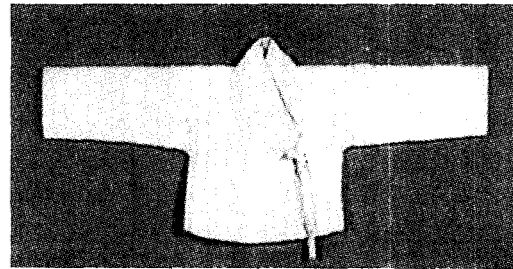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17·18세기 유물을 중심으로 복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저고리 길의 변화 (長에서 短으로)

조선시대에는 '短赤古裏'라는 용어가 보이는 것으로 짧은 저고리와 긴 저고리의 구별이 있었다. 1620년 (그림 1)의 광해군 유씨 저고리는 길이가 72cm이며, 화장은 손등을 덮을 정도로 긴 직 배래를 이루고 있다.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帶가 아닌 고름이 달리는 저고리로 변화했으며, 양 옆선이 터지고 길이 밖으로 퍼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1665년(그림 2) 이단하 부인의 저고리는 49cm로 양옆이 터지지 않고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그림 1〉 광해군 유씨의 저고리(1620년).



〈그림 2〉 이단하 부인의 누비저고리.

1704년 김덕원 묘 출토(그림 3)의 亞字紋 저고리 역시 45cm 길이로 양옆선이 막혔으며 일직선으로 내려

〈표 1〉 17·18세기 중요 민속자료를 통해 본 유물⁴³⁾

인물	분류	시 기	신 분	관복	철릭	적령	창의	액주름 포	담호	중치막	도포	적삼	바지	저고리	속곳	감투
김 위		1618	현 감	2	3	1	4					1			3	
광해군		1606 ~22	왕			1								3		
박신룡		1627	권지중군	2	2				1							
구례손씨		1640	축 실				1					1	1	2	1	1
청주한씨		1650	문 신			1		2				1		3		
이단하		1665	좌의정							1				1		
이천기		1666	통훈대부증 장원정			1										2
홍국가		1670	안동유림							1	1		1			
홍진중		1702	현 감				4		1	1			2			
김덕원		1704	영의정	2	1	8	8		1	1			1	10		

42) 고복남, "조선중기의 복식변천에 대한 요인분석", *숙명여대 논문집* 25권 (1982), p. 439.

43) 문화재청의 중요민속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그림 3〉 김덕원 묘 출토 아자문 저고리.

오고 있다. 이 당시 짧아지고 있는 저고리는 치마의 허리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18세기 이후 체형이 더욱 드러나게 되고 여성의 복식 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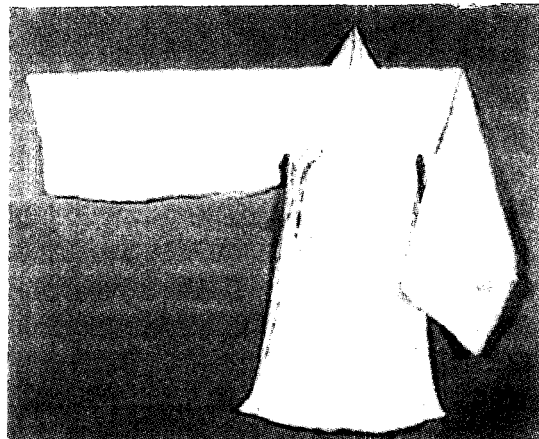
2. 소매 넓이의 변화

이 당시 편복 포의 소매는 협수에서 두리 소매로의 전환시기라고 볼 수 있다. 중치막은 임란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포제로 17세기 초반에는 〈그림 4〉와 같이 소매 배래선이 수구 쪽으로 넓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 후 17세기 중엽부터는 수구 쪽이 넓어지면서 진동선 아래 부분의 깎임선이 급한 경사가 지면서 곡선을 이루고 있다. 〈그림 5〉의 이단하 중치막과 같이 17세기 말에는 무가 없이 겨드랑이 15cm내외 아래부터 트여있어 이 이후로 중치막의 무가 사라졌으며, 이는 두리 소매형의 시작을 예고한다⁴⁴⁾. 이어 18세기 광수형 소매는 두리소매 형태로 완성된다.(그림 6)

철릭의 형태는 상의와 하상이 연결된 옷으로 상의는 직령에 우입이며, 두리 소매이고 고름으로 여마게 되어 있으며, 하의는 주름잡은 치마를 붙인 상의하상식으로 되어 풍성한 형태가 품위를 자아낸다⁴⁵⁾. 철릭의 대중 수용기는 임진난과 정유난·병자난이 있었던 선조·인조 대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특히 인조대인 1620년대를 고비로 형태상에 큰 변화를 맞게 된다⁴⁶⁾. 〈그림 7〉과 같이 衣와 裳의 길이의



〈그림 4〉 광해군의 담청색 운문단 중치막(1620년대).



〈그림 5〉 이단하의 흰색 모시 홀 중치막(1665년).

비례가 1:1에서⁴⁷⁾ 〈그림 8〉과 같이 1:2로 변하게 되었으며 소매의 형태에 있어서도 넓은 두리 소매로 이행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18세기 초의 철릭에서는 손을 덮으며 기능성과는 거리가 먼 철릭으로 변화하면서 재질에 있어서도 운문단을 사용하여 신분울 과시하고자 하였다.(그림 9)

여기에서 편복 포의 소매가 넓어지는 것은 좀 더 의례적인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매는 의복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상대에게 禮를

44) 박성실, "경기도 양주 해평 윤씨 문중 선산 출토 남아 미라 복식유물에 관한 고찰", *남아미라 및 출토유물연구논총* (서울: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2002), pp. 272-276.

45) 김정자, "帖興考", *복식 8호* (1984), p. 67.

46) 이은주, "철릭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3권 4호 (1989), p.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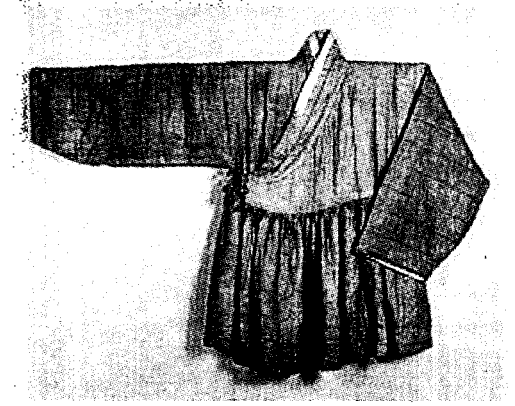
47) 장인우,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서울: 학연문화사, 1995),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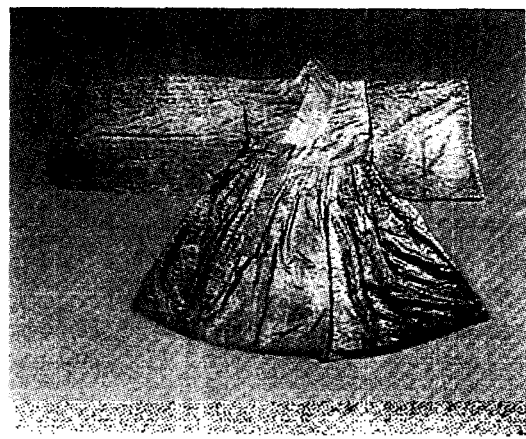
〈그림 6〉 홍진중의 명주 남의 중치막(1702년).



〈그림 8〉 김위의 자색 명주 홀 칠락(1618년).



〈그림 7〉 순천김씨 부인의 겹누비칠락(1594년 전후).



〈그림 9〉 김덕원의 운문단 칠락(1704년).

올리는 상징적인 표시이다. 손을 공손히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모두 소매모양의 정리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이 당시의 소매통이 넓고 손을 지나도록 소매가 광활한 것은 단정하고 의례적인 기능이 중시된 것에 기인한다.

3. 길상문양의 출현

이 시기 누구나가 선호하는 재질로 사라능단⁴⁸⁾을 들 수 있다. 경국대전에 사라능단은 재상과 당상관 이상의 부녀들에게 허용되어 있었다. 또한 사스러운 장식으로 사용하는 사라능단은 금하지 않았으며 사족의 부녀나 기녀, 어린이의 복식에도 비단을 허용

하였다. 이는 강한 규제로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선왕조에서도 장식을 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내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복식미를 존중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치풍조가 민간에까지 확산되면서 사라능단은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어 선호하는 옷감이 되었으며 깃·고름·결마기·끝동에는 문양 있는 비단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장식용의 옷감은 문양이 있는 것으로 이는 장식에만 머물지 않고 복을 바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문양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운문(그림4, 10)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여성의

48) 사라능단은 고급비단을 일컫는 말로 직조방법·품질·문양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紗는 얇고 투명하게 짠 하복지를 말하며 羅는 문양이 성긴 箔網의 하복지를 말한다. 綾은 얼음과 같이 섬세하게 직조된 춘추복지를 지칭하며 緞은 광택이 있으며 부드럽고 촉촉하게 짠 有紋·無紋의 동복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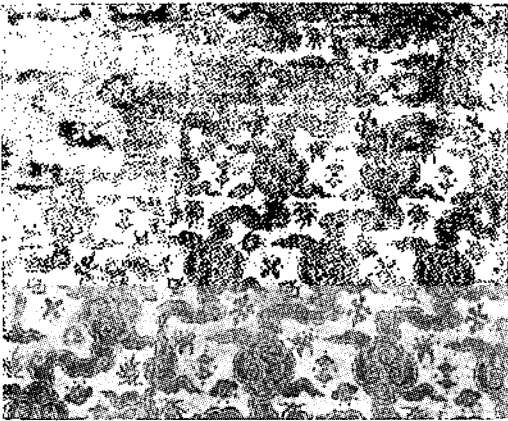
경우는 소화문, 卍字紋, 목단문(그림11, 13), 亞字紋(그림 3), 화조문(그림 1), 포도동자문(그림 13)등이 보인다. 무늬가 있는 비단은 특히 비싼 수입품이지만 의복은 입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기원하는 마음까지도 담아 착용한 것으로 사치만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4. 배색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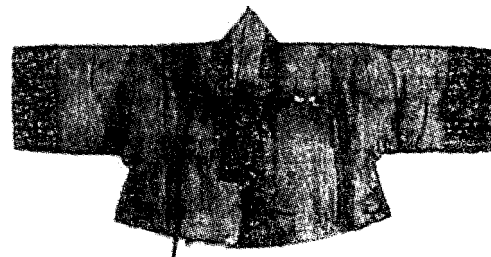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색채관념은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하여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신앙을 토대로

한 주술성의 색채의식으로 색채 관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색은 계급의식이 강하게 표현되어 상징적 의미로 복색이 재정되었고 이에 의하여 색 질서가 확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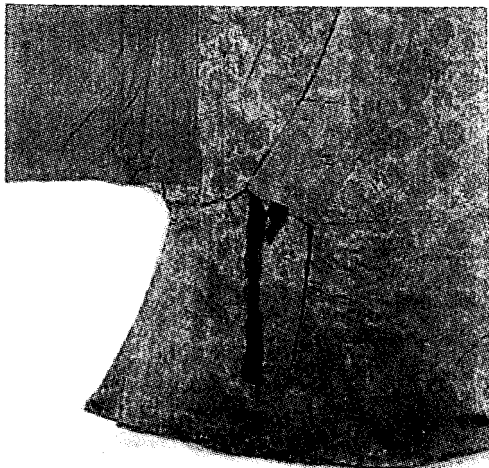
조선시대 색채 명은 황색계, 자색계, 적색계, 녹색계, 다색계, 흑색계, 청색계, 남색계, 기타 색 등으로 분류한다⁴⁹⁾. 그 중 녹색계에 속하는 송화색과 두릅



<그림 10> 김덕원 묘 출토의 운문.



<그림 12> 과천 출토 명주 목단문 삼회장 접유저고리.



<그림 11> 전 박장군 갈색 목단 문단 겹 당저고리.



<그림 13> 포도동자문 치마.

48) 사리능단은 고급비단을 일컫는 말로 직조방법·품질·문양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紗는 얇고 투명하게 짠 하복지를 말하며 羅는 문양이 성긴 箔網의 하복지를 말한다. 綾은 얼음과 같이 섬세하게 직조된 춘추복지를 지칭하며 緞은 광택이 있으며 부드럽고 촘촘하게 짠 有紋·無紋의 동복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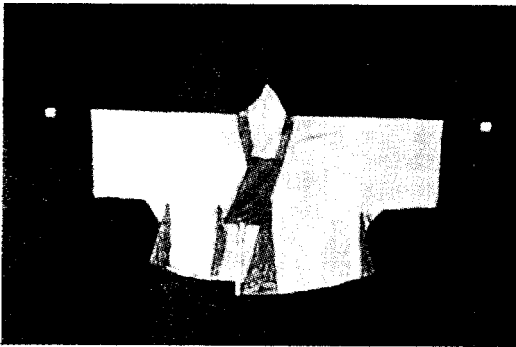
색이 꾸준히 여성의 저고리 길에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자주색 회장을 달았다. 배색은 크게 장식과剔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안동 김씨 삼회장저고리는 소매 끝 삼수와 어깨부분에 짙은 갈색의 꽃무늬 천을 사용하였고, 앞쪽의 몸판에는 연두색 공단을 조각조각 이어서 붙이고 흰 색의 명주로 만든 동정을 달았다. 저고리 길의 두록색과 회장의 자주색이 아름답게 배색되었으며, 쇠에도 회장을 달고 있다. <그림 14>와 같이 고름에도 두록색과 자주색의 끈을 달아 묶음으로서 배색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붉은 회장은 깃과 결마기(그림 15) 또는 깃, 결마기, 끝동에 배색을 하여(그림 16) 짧아진 저고리의 단순함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저고리에 붉은 색의 회장을 다는 것은 주술적 의미가 내포되어 악귀를 쫓거나 예방하는 효과⁵⁰⁾를

나타내고자 할 뿐만 아니라 보색에 가까운 색상대비는 젊고 활동적인 색상 배합으로 여성들의 복식미를 표출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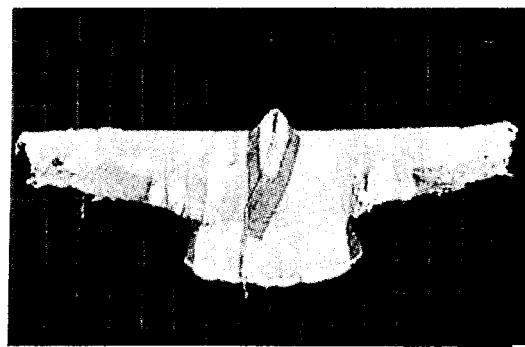
V.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의 17·18세기는 임진왜란이라는 사회적인 대 변혁을 거치면서 사회·경제·문화전반에 걸쳐 변화와 변동을 일으켰으며, 복식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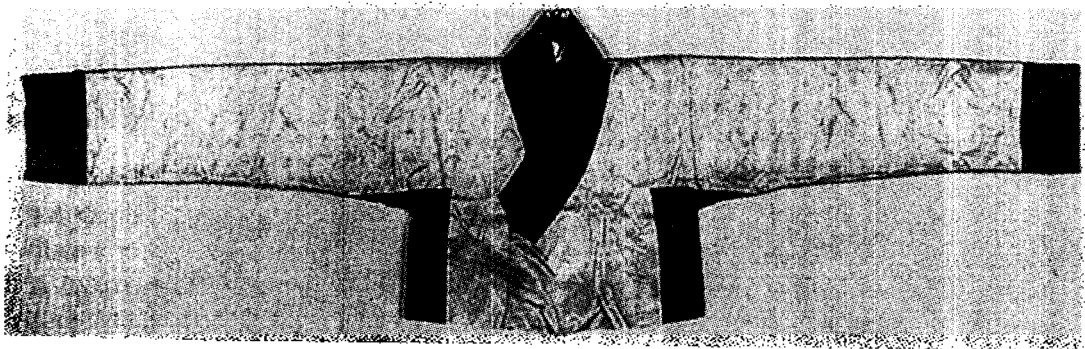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내려지던 복식규제 중에서도 특히 17·18세기는 사치를 금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강하였다. 그러나 근대국가로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이 시기는 신분사회의 해체·상공업의 발달·모방 심리의 발현 등으로



<그림 14> 안동김씨 두록색 삼회장 저고리.



<그림 15> 구례손씨 겹슴 회장저고리.



<그림 16> 백담사 목조 아미타불 좌상 부복장 유물의 노란색 삼회장 저고리.

49) 김영숙, "한국복식사에서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 162.

50) 장운숙, "복색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음양오행 사상을 기초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 91-93.

사치를 규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사치를 통한 복식미의 표출은 다양한 복식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억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복식은 자신을 표현하고,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체형미를 인식하게 되었고, 편복 포의 소매를 광활하게 하면서 의례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당시 가장 선호하고 동경한 사라능단에는 특히 문양을 넣어 장식뿐만 아니라 기복(祈福)을 동시에 만족시켰으며, 색상에 있어서는 단조로운 구조에 변화를 주고자 깃·끝동·결마기·고름에 보색이 되는 색상배합으로 더 젊고 활동적으로 보이는 배색의 다양성과 붉은색의 회장을 달아 벽사의 미를 이끌어 내었다. 즉 저고리 길의 변화, 소매 폭의 변화, 문양에 나타난 상징, 색상에 따른 다양한 배합 등의 복식변화는 사치 풍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복식이 당시의 사회를 대표하는 살아 있는 문화적 산물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大典後續錄」
 「宣祖實錄」
 「星湖德說」
 「續大典」
 「肅宗實錄」
 「肅宗實錄補闕正誤」
 「英祖實錄」
 「正祖實錄」
 「芝蜂類說」
 강만길 (1984). *대세계사* 7. 서울: 태극출판사.
 강만길 (1996). “조선후기 수공업자와 상인과의 관계.” *아세아 연구* 9권 3호.
- 강운숙 (1994). “복색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복남 (1982). “조선중기의 복식변천에 대한 요인분석”. *숙명여대 논문집* 25권.
 권영숙, 장현주 (1998). “조선시대 견직물의 생산과 유통”. *복식* 40권.
 김영숙 (1984). “한국복식사에서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자 (1984). “침리고.” *복식* 8권.
 김현주 (2000). *관소리와 풍속화 그 님은 예술세계*. 서울: 효형출판.
 남미혜 (2000). “15,16세기 복식사이의 유행과 국가의 대응책 - 사라능단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27집.
 박성실 (2002). “경기도 양주 해평 윤씨 문중 선산 출토 남아 미라 복식유물에 관한 고찰”. *남아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서울: 석주선 기념 박물관.
 백성례 (1979). “복식사치금제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유한 (2000). “조선후기 대청관계 및 인식의 변화”. *아세아 문화연구* 4권.
 이선재 (1990). “조선시대 복식금제의 동인과 양상에 관한 연구”. *숙대 논문집* 30권.
 이은주 (1989). “철릭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한국 의류학회지* 13권 4호.
 이종일 (1987). “18세기 조선사회에 대한 계급론적 연구”. *대구교대 논문집* 28권 1호.
 이희승 (2001).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장인우 (1995).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서울: 학연문화사.
 조계찬 (1975). “임진왜란의 신분향상에 관한 소고”. *동아논총* 12권 1호.
 표준국어대사전 (1999). 서울: 두산동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9). 성남: 정신문화연구원.